

안동능곡회 39주년 기념 및 제39, 40대 회장단 이·취임식 거행

안동권씨능곡회 39주년 기념 및 제39, 40대 회장 이.취임식이 7월 18일 오후 6시 30분 안동그랜드호텔 2층 그랑포레 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최근 전국에서 폭우가 계속 쏟아지는 가운데 행사장 안에는 장미 등 여러 종류의 꽃들로 가득 차 꽃 냄새가 물씬 풍기는 가운데 행사가 펼쳐졌다.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열 두 장구 북 아카데미’ 팀이 출연, 신나는 북춤으로 장내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이날 행사는 1, 2, 3부로 나누어 1부는 권진업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광택 능곡회장 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시조모상 판매, 능곡회원과 능우회원 간 상응례순으로 이어졌다. 권우성 상임부회장은 참석한 내빈을 소개하였다. 권영상 능곡회 초대 회장 겸 북야공파회장, 권혁창 대종회 제례위원장, 권오의 대종회 사무국장, 권오춘 전 부정공파회장, 권오길 정조공파회장,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윤, 김정림 안동시의회 두 의원, 권태형 안동농협조합장 등이며 능곡회원 및 능우회원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축사와 격려사를 계획했던 권영창 대종회 회장, 권기창 안동시장, 권철환 안동중친회장, 권오관 능우회장 등 4명이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권광택 능곡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능곡회 발전에 도움을 많이 준 권오직 전 능우회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권일경 재무차장 등 2명에게 우수회원패와 꽃다발을 각각 수여했다.

권광택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회원들의 도움과 협조로 39대 회장 직을 무사히 마쳤으며 임기동안 월례회, 분과별 모임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회원 간 화합과 노력하였으며 특히 6년간 개최하지 못하고 있던 율놀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마음 뿌듯하다”고 말했다.

2부 행사는 권동관 40대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권광택 회장 부부



는 권기섭 신임 회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능곡회의 상징인 능곡회 기(旗)도 전달하자 기섭 회장은 기를 들고 좌우로 흔들며 보이기도 했다.

권기섭 회장은 취임사에서 “능곡회 창립 40년 만에 우리만의 능곡회에 머물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능곡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손소리와 충고는 저에게만 해 주시고 격려와 칭찬은 회원들에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권기섭 회장은 국립안동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 현재 한국철도공사에 35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대한사랑 경북지부장, 역사찾기 안동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취임사가 끝나자 권기섭 회장은 권광택 회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권진업 사무국장과 권중국 재무국장에게 공로패와 꽃다발을 각각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신임회원 권재운(부정공파, (주)한성테크 이사), 권기명(동정공파, 청옥보호작업장 직업훈련교사) 2명을 능곡회에 입회시키고 권광택, 권기섭 두 회장이 이들에게 능곡회원증을 전달하고 배지를 가슴에 달아주었다.

권영상 북야공파회장은 격려사에서 “1986년 8월 8일 회원 35명이 모여 형제같이 시작한 능곡회가 초창기에 안동권씨체육대회에 4개 팀이 참가, 안동에서 개최한 이후 그동안 점점 발전하여 전국체육대회로 넓혀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회

고했다. 앞으로 예산 때문에 체육대회를 개최할 지역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우려, 예산과 중목을 줄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권오의 사무국장은 격려사에서 “능곡회가 단합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고 태사묘의 임원이나 유사들도 능곡회원들을 선임하도록 할 작정 “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안동 권씨는 안동의 명문거족으로 송조사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안동발전을 위하여 초석이 되어 달라 “고 당부했다.

격려사, 축사가 끝나자 사회자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김형동 이지역 국회의원이 보낸 축전을 낭독하기도 했다.

이날 권영창 대종회 회장, 권영상 북야공파회장, 권철환 안동중친회장, 권운주 성균관유도회 안동지부장 등 40여 명이 능곡회 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하는 뜻에서 대형화환을 보내왔다.

3부 행사는 권기섭 신임 회장과 임원단이 합동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이어 능곡회와 능우회가 단제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기섭 회장이 폐회선언에 이어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뷔페로 저녁식사를 하였다.

능곡회장을 역임하였던 권기호씨(경일산업사 대표)가 참석자 전원에게 타월 1장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신중년이 당당하게 잘사는 법

올바르게, 부지런하게, 튼튼하게, 단순하게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세 북야공파)



3. 튼튼하게 챙기기 – 몸과 마음의 기초 체력을 쌓자

건강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수면, 식사, 감정관리, 인간관계, 사고 루틴은 신중년의 '면역 체계'입니다. 하루 6시간 이상의 숙면, 정제식 대신 자연식 식

단, 하루 한 줄 감사일기, 정기적 모임, 필사와 독서. 이 루틴들이야말로 신중년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AI 감정일기 앱을 활용해 자신의 감정 흐름을 점검하거나, 건강관리 앱으로 수면 상태를 기록하고 피드백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함께 흔들리기에, 우리는 매일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루틴을 챙겨야 합니다.

4. 단순하게 정리하기 – 덜어낼수록 삶은 명료해진다

복잡한 삶은 신중년에게 독이 됩니다. 불필요한 물건, 감정, 인간관계는 우리를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까?”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AI 정리 도구를 활용해 일정과 업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미니멀 앱을 통해 가계도 정리해보세요. 감정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일기나 음성 메모로 마음을 정리하면, 마음의 공간도 환기됩니다. 단순함은 결핍이 아닌 선택이며, 삶을 가볍고 단단하게 만드는 신중년의 최고의 자기관리 전략입니다.

맺음말 – 신중년의 품격은 매일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당당하게 잘사는 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의 태도입니다.”

내 삶을 나답게 가꾸고, 작지만 반복되는 실천으로 일상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중년다움입니다. 오늘의 루틴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지금의 태도가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더 멋지게!

품격있는 신중년의 삶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북야공파 청석종중(靑石宗中) 을사년 취회(聚會)

북야공파 판서공계 청석종중(대표 권오영))은 지난 7월 18일(金) 11시 “묵향”에서 북야공파 파종회장이신 권영상(여천군계) 회장을 비롯해 원로 권택진, 권기호, 권세묵 전 파종회장, 권혁창 대종회 전례위원장, 권석환 안동문화원장, 권도현 전 청송교육장, 권석순 파종회 사무국장, 권오주 도산서원 감독유사, 권기대 공주대학교 교수 등 종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사년 취회(聚會)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권영달 별임의 사회로 권오영 회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권태현 도유사 인사 후 권영상 파종회장님은 축사에서 판서공계(휘: 인靱,15世) 주손인 청석종중 을사년 취회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안동권문의 송조돈묵(崇敎敦默)을 산하에서 있는 청석종중의 사정공(휘諱:개玡, 18世) 후손들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일봉을 헌성하였다.

이어서 권오의 별임의 경과보고와 재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고 송편과 과일을 곁들여 불고기 정식으로 점심을 들면서 종중의 발전과 모든 종원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면서 시종일관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하루를 보냈다.

사정공(司正公1416~1477)의 자는 가



옥(可玉)이고 부(父)는 황성현감을 지내신 계경(啓經)이시며, 조(祖)는 중낭장을 지내신 후(厚)이시고, 증조는 판서공계 계파조이시며 고려흥부 갑인년에 문과 장원을 하시고 봉익대부로 예의판서를 역임하신 인(訥)이시다. 공(公)의 배(配)는 흥해 배씨(興海裴氏)로 지평(持平) 권(權)의 따님이시며, 판서이신 백죽당(柏竹堂) 배상

지(裴尚志)의 손녀이시다. 아들은 사맹공(司猛公) 숙형(叔衡)과 진사공(進士公) 숙균(叔均)이 있고, 따님은 4분이시고 이중막내 서(姬)는 숙종(肅宗)의 명으로 단계(丹溪) 하위지(河委志) 후사(后嗣)를 이은 진주인(晉州人) 하원(河源)이다.

권오의 안동사무국장

경산시종친회 복다름 행사, 족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 보내

경산시종친회(회장 권오흥)는 7월 23일 시내 삼계탕집에서 2025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복다름 행사를 가졌다.

경산시종친회는 매년 여름 삼복 중에 길일을 택해 족친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복다름 행사를 하고 있으며, 권영승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시조 태사님 묘소를 향한 망배를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권중래 부회장은 “회장이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대신해서 인사를 전하며, 이번 폭우에 피해는 없었는지 족친들의 안부를 묻고, 폭염이 계속되는 삼복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준비한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 에너지를 충전하여 이번



여름 모두 건강하게 보내기를 기원한다,”

국민기자뉴스 권성욱 취재부장

고 했다.

안동권씨 추밀공파 원주 공참공종중(처사공,전력부위공)여행기

안동권씨 추밀공파의 원주 낙향조(落郷祖) 17세 공조참판공 자손들이 원주를 중심으로 번창하고 공(公)을 향시조(鄉始祖)로 섬기고 있으며 그 후손들이 처사공, 전력부위공이다. 금번 종중 여행은 양 종중 간의 대화를 하고,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새로운 장소와 음식을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경험이 쌓여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또한 종중여행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처사공 23명, 전력부위공 28명의 종원이 거제, 통영, 부산으로 2박 3일(6월6일~6월8일)여행을 하게 되었다.

첫째 날 7시 25분에 원주 따뚜주차장에서 출발하였다. 이른 시간에 출발해서 아침은 충주 한식부페에서 식사를 하고 거제도로 출발하였다. 고속도로 진입을 하면서 회장의 인사와 여행을 하게 된 동기 종원 간의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3일 연휴라 차량이 밀려 늦은 점심을 해물탕으로 하고 첫번째 행선지는 통영계이불가 탐승 후 미륵산 광광이다. 케이בל카를 타고 미륵산 정상에 올라 한려수도의 탁 트인 전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제승당은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가 강하게 남아있는 여행지인데 시간에 쫓겨 여행을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통영중앙전통시장과 동피랑 벼화마을로 갔다. 언덕이 많아 걸어가기가 힘들었지만 너무 이쁜 벼화를 볼 수 있어 좋았다. 피랑은 언덕이라는 뜻이다. 동피랑을 둘러보는 동안 보이는 가게들은 이쁘기만 한 카페뿐이었다. 중앙전통시장은 4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시장이다. 동양의 몸마르뜨라 불리고 동피랑이 자리하고 이순신장군의 전공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세명관과 거북선이 전시된 강구관, 문화마당과 인접해 있다. 꿀빵 가게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수제꿀빵, 명가꿀빵 두 곳에 만 줄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첫째날 일정을 마치고 저녁장소인 보광장에 생선구이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장해서인지, 맛있어서인지 음식이 나오기 바쁘게 식사를 하였다. 오늘 일정을 마



치고 라베르호텔에 여장을 풀고 저녁 단합 모임을 돈치킨에서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둘째날 이른 아침 굴국밥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8시에 외도로 출발하였다. 남해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위치한 해상공원 보티니아 외도로 들어가는 유람선을 타고 해금강 투어를 함께 하면서 도착하였다. 날씨가 좋아서 더 예뻐던 외도 수많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사진도 찍고 이국적인 풍경의 외도, 외도의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다양한 테마의 정원을 돌아보고 휴게소에서 시원한 커피를 마시며 이국정취를 느꼈다.

바다가 접해 있고 언덕이 넓게 펼쳐져 있고 말 그대로 바람이 분다 해서 바람의 언덕 구경은 시간에 쫓겨 여행을 뒤로 하고 부산으로 출발하였다. 부산과 거제의 연결도로인 거가대교를 지나서 종원들의 장기자랑을 하면서 흥을 돋구었다. 부산에 도착하여 해운대 유람선에 몸을 싣고 해운대 앞바다를 지나 동백섬을 돌아보고 남구의 절경인 이기대를 거쳐서 신선이 노닐었다는 신선대 비경과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 1,2섬을 일주하였다. 마지막 저녁 만찬은 부산화타운에서 회정식으로 종원님들의 자기소개와 건배 제의 등 화합을 위한 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졌다. 아쉬움을 남기고 저녁 숙소인 오 호텔에 여장을 풀고 마지막 단합 모임을 송정노래방에서 늦게까지 이어졌다.

셋째날 전날 약주를 많이 해서 콩나물 활태해장국이 너무 맛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 코스로 출발하였다. 먼저 한국의 대표 아쿠아리움으로 8개의 테마구

역 및 250종이 넘는 해양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길이 80미터의 해상터널에서 각종 수중 생물을 관찰하였다. 아쿠아리움 옆에는 해운대 모래 축제장에 대형 모래 조형물들이 있었다. 모래축제는 200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맞이하고 있다. 부산 자갈치시장은 국제시장, 부평강통시장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고 부산 자갈치 아지매로 상징되는 한국의 대표적 어시장이다. 시장 구경과 장을 보고 태종대로 출발하였다. 근처에서 해물탕 및 생선구이로 점심을 하고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이 남해바다와 어우러진 비경이 유명한 태종대 구경을 하고 마지막 여행지인 뒤편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해동 용궁사를 구경하고 일정을 마무리하고 원주로 출발하였다.

버스에 몸을 싣고 2박 3일간의 여행 소감 시간을 갖고 종원들과 즐거운 여행을 함께 해서 행복하였고 항상 건강하길 바라며, 종사에 늘 함께 하길 기원하는 회장님의 끝맺음 인사가 있었다. 9시 30분 원주 도착 후 해산하였다.

여행을 마치면서 남해안은 기본적으로 섬의 경치를 보러 가기 때문에 화창하고 좋은 날을 선택해야 제대로 즐기 좋다. 인기있는 관광지와 경치 외에도 즐길 만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생겨야 될 듯하다. 식당의 경우 가격대비 맛집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 성수기엔 여덟 가나 복잡했다. 앞으로 양 종중간 단합되고 화합해서 권문 중에서 으뜸가는 종중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권영익 공참공종중 회장, 권용덕 사무국장